

바이오세라믹 재료를 이용한 생활 치수 치료

김 선 일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존과

근관치료는 환자의 통증 조절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술식 중 하나이지만, 노력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치료해야 하는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많은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가급적 피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바람 때문인지, 최근 바이오세라믹 재료를 이용한 부분 치수절단술 (partial pulpotomy) 등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수와 관련된 진단과 치료는 너무 피하려고만 하다 보면 나중에 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미국의 심장전문의 로버트 엘리엇은 스트레스를 덜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치과의사들이 근관 치료를 즐기면서 하기에는 쉽지 않기에, 이번 강의에서는 어떤 증례에서 근관 치료를 하지 않고 생활 치수 치료 술식을 통해 치수의 생활력을 보존하고 근관 치료를 방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첫 번째 명심해야 할 점은, 생활 치수 치료는 치수의 생활력을 보존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술식입니다. 근관 치료를 피하려고 선택 하면 나중에 더 큰 골칫거리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피할 수 없이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깊은 우식을 가진 치아를 ‘적절히’ 진단 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수립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학력 및 경력

-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치과보존과 인턴 및 레지던트
- * 연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박사
- * 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존과 부교수